

근대전환기 동학·천도교의 위생인식*

성 주 현**

- I. 머리말
- II. '위생'에 대한 동학의 인식과 대응
- III. 동학에서 천도교로 전환과 근대위생 인식의 계몽
- IV. 천도교의 위생에 대한 종교적 인식과 심신수양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전환기 동학·천도교의 위생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876년 개항을 계기로 한국사회를 경험한 서구인들은 당시 한국은 위생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사회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개항 이후 일본과 미국 등 근대문명을 시찰한 개화인물 역시 위생은 '문명국의 척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생법 시행을 주장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동학·천도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정신적 질병을 구제하는 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질병의 치료 즉 위생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를 계승한 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518)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연구교수

월 최시형은 위생을 보다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해월 최시형은 묵은 밥은 새 밥에 섞지 말 것, 묵은 음식은 끓여 먹을 것, 코나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 것, 대변을 본 뒤에는 땅에 묻을 것, 지저분한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 등 다섯 가지 위생규칙을 정하였다. 이는 당시 유행하였던 전염병 예방법이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동학은 당시 유행하였던 ‘괴질’이라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해월 최시형의 위생의식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는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통해 위생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보다 심화시켰다. 『만세보』를 통해 위생에 대한 인식을 계몽하였다. 「위생개론」을 비롯하여 「위생학」, 「위생법」을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재하였다. 손병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도교인에게 위생 실행 조례를 반포하였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학 천도교의 위생의 본질은 신체의 질병보다는 정신적 질병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수운 최제우에서 의암 손병희에 이르기까지 천도교의 핵심인 주문과 청수를 통해 심신수양을 강조하였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이 일상생활을 통한 위생을 토대로 정신적 수양으로 이어지는 인식이 동학 천도교의 위생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동학, 천도교,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위생, 만세보, 콜레라, 호열자

I. 머리말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이른바 근대성이 한국사회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 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근대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강화도조약을 통한 세계사회의 편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이든 타율적이든 ‘근대’라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통리기무아문 등 근대적 기구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박문국, 기기창, 전환국 등이 근대 관련 기구 역시 설립되었다. 위생과 관련하여 당시 근대의학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근대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위생과 관련하여서도 서양의 근대적 의료행위가 도입되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876년 개항을 계기로 한국사회를 경험한 서구인들은 당시 한국은 위생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사회로 인식하였다.¹⁾ 이러한 인식은 서구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개항 이후 일본과 미국 등 근대문명을 시찰한 개화인물 역시 위생은 ‘문명국의 척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생법 시행을 주장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

이와 같이 위생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한말 ‘호열자’라고 불리

- 1) 1894년 한국을 찾은 비숍 여사는 당시 서울을 ‘북경을 보기 전까지 가장 불결한 도시’라고 한 바 있으며, 언더우드 부인은 ‘도랑에 흐르는 구정물이 쓰레기에 막혀 길거리로 흘러넘친다’고 하였다(비숍 저,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50쪽 및 릴리어스 호른 언더우드 저, 김철 역,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이숲, 2008, 171쪽).
- 2) 일본과 미국 등 선진 서구문명을 시찰한 개화인물 중 박영효는 위생이 ‘문명국에 이르는 척도’라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생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김옥균 역시 『治道論』에서 각국의 가장 긴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위생이라고 하였으며, 유길준은 문명국은 양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는 콜레라와 이질 등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심리가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의 근대문명을 경험한 개화 인물들의 근대문명에 대한 표준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개화인물 뿐만 아니라 동학·천도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86년 콜레라가 유행할 당시 동학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시형은 ‘청결’을 강조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교세를 확장하는데도 일정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위생에 대한 인식은 훗날 동학이 천도교로 전환된 후에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천도교는 『만세보』를 통해 근대위생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한편 교인들에게도 이를 강조하였다.³⁾ 이에 따라 본고에는 동학과 천도교의 위생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위생’에 대한 동학의 인식과 대응

동학이 창도될 당시인 1860년을 전후하여 조선사회는 콜레라가 만연하였다. 1859년~1860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사망자 수는 4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콜레라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이질, 두창, 성홍열 등 질병으로 인해 일반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야기될 정도였다.

종교가 그러하듯이 질병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보고 있다. 하나는 몸의 질병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질병이다. 대부분 종교는 이들에 대한 치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동학도 예외가 아니듯이 수운 최제우는 이른바 천사문답⁴⁾에서 상제로부터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을 건

3) 동학과 천도교의 위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다음 두 편의 논문이 있다.

손동호, 『『만세보』를 통해 본 한말 위생담론 연구』,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신동원,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위생론-치병에서 위생으로」, 갑진개화운동100주년 기념학술발표회, 2004.

지고”⁵⁾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영부에 대해서 “영부는 사람의 병을 건지고 사람의 죽은 혼을 구하여 산 혼으로 돌이키며 인간사회의 모든 죄악과 폐막을 다스리는 불사약”⁶⁾이라고 하였다. 즉 영부는 몸과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수운 최제우는 영부를 만들어 먹은 바, “몸이 윤택하여 지고 얼굴이 환태(幻態) 되고 묵은 생각과 낡은 마음이 구름 같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신이 새암 같이 솟았다”⁷⁾라고 하였다. 이는 영부가 동학에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동학은 정신적 질병을 구제하는 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질병의 치료 즉 ‘위생’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수운 최제우는 “길 가면서 먹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악육(惡肉)’⁸⁾을 먹는 것도 금하였으며, ‘청결’을 강조하였다.⁹⁾ 이는 식생활을 통한 위생을 의미한다.¹⁰⁾ 이처럼 동학은 초기부터 청결을 포함한 위생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하였다. 이는 동학을 창도할 당시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

4) 수운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하는 과정에서 상제와의 묻고 답하는 ‘천사문답’이라고 하였다.

5)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제1편 12쪽.

6) 앞의 책, 13쪽.

7) 앞의 책, 13쪽.

8) 惡肉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필자의 경우 ‘상한 고기’로 해석하고 있지만, 동학에서는 ‘개고기’로 해석하고 있다. ‘악육’을 개고기로 특정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이돈화, 앞의 책, 13~14쪽.

10) 수운 최제우는 질병을 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해석보다는 종교학적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일에는 다음과 같다.

“義城이라는 곳에 와서 金公瑞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할 세, 김공서 낮에 근심하는 기색이 보이거늘 대신사(천도교에서 수운 최제우를 높여 부르는 호칭) 그 연고를 물은 대, 공서 가로되 「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금방 죽게 되었소」 하고 대신사에게 혹 치료의 方이 있는가를 물으며 심히 애걸하거늘, 대신사 病人을 친히 보시고 두어 번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광채있는 눈으로 들어다 보더니 병인의 몸에서 냉기가 감하고 혈맥이 순통하여 병이 쾌차한지라.”(이돈화, 앞의 책, 29~30쪽.)

병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수은 최제우로부터 동학을 이어받은 해월 최시형은 위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1886년 ‘악질(惡疾)’이 유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교인들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덕 27년 병술 4월에 신사¹¹⁾ 에게 일러 갈오되, 금년에 이
하리라 하시고 에게 에 힘쓰게 하시되, 특히 을
로 하리라 하니 그 인즉,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묵은 은
새로 끌어 먹으라.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라, 만일 길이어든 땅에 묻고
가라, 을 본 뒤에 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흠인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집안을 하로 두 번 히 닦으라.¹²⁾

에 반드시 이 하리니, 히 하라. 집안을 히
하고 을 케 하고 코침을 함부로 뱉지 말라.¹³⁾

이 글에 의하면, 해월 최시형은 악질 즉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것을 미리 예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인들이 지켜야 할 ‘위생 규칙’을 정한 것이다. 즉 묵은 밥은 새 밥에 섞지 말 것, 묵은 음식은 끓여 먹을 것, 코나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 것, 대변을 본 뒤에는 땅에 묻을 것, 지저분한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 등 다섯 가지 위생규칙을 1886년 유행한 콜레라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처방이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적 위생의 도입 이후 「호열자 예방 규칙」¹⁴⁾이 마련된 1899년 5월보다 10여 년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동학교인들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과연 괴질이

11) ‘神師’는 천도교에서 해월 최시형을 존칭하여 부른 호칭이다.

12) 이돈화, 앞의 책, 제2편 38쪽.

1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65쪽.

14) 「호열자 예방 규칙」, 『독립신문』 1899년 9월 4일.

대차하여 전염을 면한 자·백에 하나이 없으되, 오직 도가(道家)에는 소범(所犯)이 없었고 신사 소거촌(所居村) 40호에는 병 걸린 자 한 사람도 없음”이라고 하여, 동학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동학을 하면 ‘괴질’ 즉 콜레라 등 전염병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도에 드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¹⁵⁾ 정도로 동학의 교세가 크게 신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위생인식은 음식 등 위생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들에게도 지침으로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1889년에 또 다시 콜레라의 전염병이 유행하자,¹⁶⁾ 해월 최시형은 「내수도문」을 지어 여성들의 위생 생활화를 도모하였다. 그 위생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결한 물을 길러 음식을 청결하게 하라.

15) 천도교사편찬위원회 편, 『천도교백년약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81, 152쪽.

16) 1889년 콜레라 유행과 관련하여 프랑스 민족학자 샤를 바라가 청도를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남긴 바 있다.

“우리는 꽤 높은 고개를 건너 해질녘이 되어서야 총안이 조밀하게 뚫린 청도라는 도시의 성벽 앞에 당도하였다. 이중으로 요새화 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만한 장소에서 흔히 보듯 위병이라든가, 상인이나 행인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쥐 죽은 듯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리에는 잡초가 여기저기 돋아나 있었고 행렬이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구경 나오거나 심지어 꼬고 닫힌 집의 문조차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한 마디로 그나마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나오는 성채보다도 했다.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이곳이 혹 유명도시는 아닐까 생각했는데, 마침 개 한 두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뿐만 아니라 저녁 어스름 속 종이로 바른 몇 안 되는 창문에서 멀찌감치 희미한 불빛이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는 도시로 들어갔던 반대편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한동안 마치 그 안의 침묵에 전염이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그 이상한 도시를 힐끔 바라보았는데, 순간 흡사 유명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성문이 슬그머니 닫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묵은 마을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실 그 유명도시가 최근에 콜레라의 피해를 입어 거의 폐허나 다름없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끔찍한 전염병은 온 나라를 꽤나 자주 괴롭히는 모양이다.”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흘린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나 을 아무데나 하지 말라. 만일 길이어든 반드시 묻으라.
 금난 그릇이나 이 빠진 그릇에 먹지 말라.¹⁷⁾

이 위생 규칙은 앞서 1886년의 위생지침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콜레라 등 전염병을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일반적 대응이었다. 비록 먹던 밥을 별도로 관리하고 침이나 가래를 뺏지 않은 것, 깨진 그릇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은 근대적 의학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청결’을 통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학의 위생의식은 1893년 3월 ‘척왜양창의운동’이라 일컬어지는 보은취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학 교단은 1892년과 1893년 모두 세 차례의 교조신원운동 즉 종교의 자유획득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¹⁸⁾ 이어 1893년 3월 10일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반외세’를 주창하며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동학교인들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은 한 를 하여 에 있게 하되, 를 하며
 를 하는데 의 이 과 같아 도 함이 없고,
 히 을 하되 대로 이나 과 같은 은 에 묻
 는 것이 이며, 을 하고 을 히 하며, 의
 는 도 틀림없이 로 하여 의 가 없게 되니, 보는
 다 와 을 치 않는 자 없고 를 하는 도 「 은

17) 이돈화, 앞의 책, 제2편 40~41쪽.

18)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공주에서, 이해 11월에는 삼례에서, 그리고 1893년 1월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세 차례 전개되었다. 교조신원운동은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수운 최제우의 죽음을 신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는 동학교단이 처음으로 사회화를 위한 종교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동학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공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마는 는 다르다」는 말이 에 하였다.¹⁹⁾

보은에 모인 동학교인이 수만 명이었지만 행동이 하나같았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변이나 타액(침)과 같은 배설물을 땅에 묻는 것 등의 ‘청결과 위생’의 규범이 관례이며 원칙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동학은 비록 조선 정부로부터 배척당하였지만, 교인들의 행위는 ‘바르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결과 위생뿐만 아니라 의관정제, 행동엄수, 상품매가 등을 통해 근대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학의 청결과 위생은 당시로서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근대적 생활규범이었다. 이는 단순히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전염병 내지 질병으로부터 치병하는 것을 뛰어 넘는 종교적 행위였다. 이로 인해 동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데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Ⅲ. 동학에서 천도교로 전환과 근대위생 인식의 계몽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을 거치면서 그동안 불러졌던 동학은 1905년 12월 1일 천도교²⁰⁾로 전환하면서 근대적 종교의 틀을 갖추었다. 당시 동학의 최고책임자이며 동학을 천도교로 전환한 손병희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정부의 체포령을 피해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청산하고 1906년 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²¹⁾ 이어 천도교는 1906년 2월 16일 서울에 ‘천도교중

19) 이돈화, 앞의 책, 제2편 55쪽.

20) 천도교에서는 이를 ‘大告天下’라고 한다. 이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夫吾教는 天道之大原일시 曰天道敎라 吾教之朐明이 及今四十六年에 信奉之人 이 如是其廣하며 如是其多로되 敎堂之不違建築은 其爲遺憾이 不容提說이오. 現今人文이 闡明하며 各敎之自由信仰이 爲萬國公例오. 其敎堂之自由建築도 亦係成例니 吾敎會堂之翼然大立이 亦應天順人之一大表準也라. 惟我同胞諸君은 亮悉 禧. 敎會堂建築開工은 明年二月노 爲始事. 天道敎大道主 孫秉熙”(「광고-夫吾教는 天道之大原일시曰天道敎라」,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

양총부'를 설립하고²²⁾ 지방에는 '대교구'를 설치하였다.²³⁾ 뿐만 아니라 손병희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활판 등 인쇄시설도 들여왔으며, 보문관이라는 인쇄소를 설치하였다.²⁴⁾ 이를 기반으로 천도교는 기관지로 『만세보』 창간을 준비하였다.²⁵⁾ 1906년 6월 17일 창간한 『만세보』는 근대문명을 소개하는 한편 '위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몽하였다.²⁶⁾ 천도교가 『만세보』를 통해 위생에 대한 계몽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 시대부터 위생을 강조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손병희가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통해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도 천도교가 근대적 위생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세보』가 위생에 대해 처음으로 게재한 것은 「의친왕 주의의 위생」이라는 기사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서 에 하심인지 의 가 타 하시고
지 아니 하신다더라.²⁷⁾

이 기사에 의하면, 의친왕²⁸⁾이 위생에 유의하여 궁중에서 만든 요리가 부정 즉 위생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왕족으로서 위생에 관심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왕족에서도 위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21) 「孫氏還國」,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5일.

22) 「중령」 제8호, 포덕 47년(1906) 2월 10일.

23) 손병희는 서울에 중앙총부를 설치하고 전교실도 설치하였다. 지방교구는 1906년 3월 3일 대교구제를 시행하였다. 당시 대교구는 72개였으며, 10만 명 이상으로 정하였다.

24) 「중령」 제12호, 포덕 47년(1907) 2월 27일.

25) 「萬歲報設施」, 『제국신문』, 1906년 5월 11일.

26) 『만세보』의 위생담론에 대해서는 손동호, 「『만세보』를 통해 본 한말 위생담론 연구」를 참조할 것.

27) 「義親王注意의 衛生」, 『만세보』, 1906년 7월 4일.

28) 의친왕의 본명은 李堉이고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 의친왕은 손병희와 교류하였고, 천도교에 입교한 바 있다.

는 위생의 중요한 대상이 요리 즉 ‘음식’임을 아울러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이어 『만세보』는 논설에서 「위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7월 중순이었지만 30도를 달하는 무더위가 지속되자 여름철 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실천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함을 코자 하여 를 하고 을 하며 을
 하여 이나 에서 하여 의 를 하며
 을 대로 을 하고 를 도 하며 과 를
 하고 가 하고 가 한 을 하니 이
 인지 하는 이나 의 이 에 을
 함이 하여 함을 하며 가 한 에
 을 할 이 하여 할 으로 함에 한 히
 하기가 하거니와²⁹⁾

즉 무더위에 찬 것, 노숙, 덜 익은 과일, 과음, 상한 어육 등을 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그렇지만 궁핍한 생활에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아울러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더위 위생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토, 난설사(亂泄瀉), 이질[赤痢], 장티푸스[腸室扶斯], 콜레라[虎熱刺] 등 악질로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³⁰⁾ 이는 무더위가 한창인 한여름의 위생에 관한 것이지만, 위생에 철저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적 위생을 인식시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채소 상인들이 오염된 물로 채소를 키워 방매하여 위생에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있다.³¹⁾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외의 위생 상황이나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위생 상황을 소개하여 전쟁에서도 위생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³²⁾

29) 「說-衛生」, 『만세보』, 1906년 7월 21일.

30) 「說-衛生」, 『만세보』, 1906년 7월 21일.

31) 「衛生大害」, 『만세보』, 1906년 7월 31일.

『만세보』가 위생에 대한 본격적인 계몽은 「위생학」을 연재하였다는 점이다. 『만세보』는 1906년 6월 17일 창간되어 약 1년간 발행되었지만, 다시 발행되었던 여느 신문과 달리 「위생학」을 연재하였다.³³⁾ 이 「위생학」은 1907년 1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44회 연재되었다. 이외에도 「위생개론」 2회와 「위생법」 4회를 연재하는 등 위생을 비중 있게 취급하였다. 「위생학」 연재에 앞서 「위생개론」에 대해서도 두 차례 연재했는데, 이를 포함한 「위생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제목	내용
(서장)	衛生概論	
第1章	命의 父	空氣의 必要/換氣의 必要/室內의 不潔/寢室/朝大換氣/呼吸의 利益/肺結核 傳染病의 徵候豫防/古井과 洞穴/胸廓의 壓迫
第2章	命의 母	飲食物/飲食의 三大別/同化作用/人의 活力/牛豚肉 鳥肉 魚肉/魚肉鹽藏物 生乳/豆 類 豆腐/米, 小麥, 裸麥, 玉蜀黍(강낭), 蕎麥(모밀)/麵包/粉質物/菜蔬類/油質物類/果實/蘇泰苔類/菌의 鑑別法/不可用菌/ 澤(奢侈全)飲食品/酒/酒의 可飲與不可飲者/刺戟物/煙草/普通의 없는 食物/養湯英語스푸/肉類의 調理法/食物의 分量과 性質/飲食 먹는 法/食事의 前後/不養生家
第3章	養 의 河湖	血液/體溫과 體熱/傷處의 調置/體溫의 平均/血液의 原料/血行器病의 遺傳/血液과 光線의 關係/手遙
第4章	奇麗의 肌膚	汗垢/沐浴/沐浴의 節次/海水浴/海水의 時期와 日數 其 注意/溫泉浴洗濯/衣服의 種類/衣服의 多少/感冒의 原因/凍瘡/眞是美人/勇遊/運動/運動의 種類/運動의 前後/運動의 度數/朝運動
第5章	智의 囊	腦의 使用/睡眠/睡眠不熟/血液과 腦/腦의 使用方法/記憶術/心憂의 害/腦不可打撲/硬枕/反射作用
第6章	五官	目/近視와 遠視/見物의 姿勢/細物과 薄暗物/蠟燭/行燈/瓦斯燈/電氣燈/洋燈/眼不可擦/砂眼鏡/白物/過度의 使用/鳥목目(감은눈)/梅毒/耳/耳中垢/耳中 /耳中豆/寒風吹耳/過劇한 音響/心과 耳
第7章	清潔住居	住居의 必要/家屋에 用하는 材料/建築 及 材料/壁/屋根/便所
第8章	魔軍의 防禦	傳染病/傳染病 豫防法

#0 「 」

32) 「海軍衛生」, 『만세보』, 1906년 8월 8일.

33) 당시 위생학에 대한 교재로 『최근위생학』이라는 책이 있었다. 가격은 24전으로 저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황성신문』, 1906년 11월 6일 광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5일자 신문 광고에 의하면 『高等小學衛生教科書』, 6월 13일자 광고에 『衛生工事新論』·『疫病衛生書』·『衛生學問答』 등의 책이 있었다.

<표 1>에 의하면 「위생학」의 내용은 서장에 해당하는 위생개론과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위생’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보다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명(命)의 부(父)’, ‘명(命)의 모(母)’, ‘양체(養體)의 하호(河湖)’, ‘기려(奇麗)의 기용(肌膚)’, ‘지(智)의 낭(囊)’, ‘마군(魔軍)의 방어(防禦)’ 등처럼 관심을 유도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위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³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폐해가 많은 담배, 건강육인 온천욕, 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내용 중에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초 즉 담배의 해독이다. 담배는 고래의 관습으로 많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 유해물’이라고 하였으며, 그 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에 하여는 의 과 을 케 함
 , 에 하여는 을 하며 를 함
 , 애 하여는 이 하며 이 하고 의
 암이라 하는 이 함
 , 에 하여는 를 하여 를 함
 , 에 하여는 을 케 하며 이 함
 , 의 을 크게 하며 하며 함
 , 하여 로 왕왕하는 이 함
 , 수의 이 하며 이 함³⁵⁾

즉 담배는 혈중(血中), 위구(胃口), 구내(口內), 폐장(肺臟), 심장(心臟), 눈, 귀, 뇌 등에 적지 않은 해가 있으므로 흡연을 권장하지 않았다. 더욱이

34) 이에 비해 1908년에 간행된 『초등위생학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課 分別學科, 製2課 衛生總則, 第3課-第11課 飲食, 第12課-第16課 空氣, 第17課-第19課 日光, 第20課-第31課 運動, 第32課-第34課 休息, 第35課-第36課 結論.”
 35) 「衛生學(續)」, 『만세보』, 1907년 2월 10일.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면 ‘칠전팔도(七顛八倒)’하고, 중독이 되면 ‘천수(天授)의 생명(生命)을 불식불각(不識不覺) 중(中) 감손(減損)’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둘째는 건강육인 온천욕의 통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 는 의 이오, 의 은
 이 함.
 , 는 은 , 는 오, 로부터
 에 하고 에 함은 하니 을 하여
 함이 함
 , 의 은 로부터 로 하여 에 함이
 함. 은 이라.
 . 을 하는데는 에는 로부터 을 하
 여 에 하고, 에 하며, 함이
 함
 , 의 의 가 함이니, 의 을
 를 하여 를 게 함이
 , 은 하여 치 할 36)

통칙에 의하면 온천욕이 시기는 6~8월까지 3개월이며 3주일 정도가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였다. 노인은 1일 1회, 장년은 2,3회 정도 온천욕을 하고 식후에는 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온천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온천욕이 일상화되지 않았지만, 온천욕을 통해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당시 유행하였던 전염병에 대한 예방법이다. 전염병에 대한 인식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지진(地震), 뇌진(雷震), 화사(火事)도 아니오, 악호(惡호), 독사(毒蛇), 화적(火賊) 등도 아니오, 무서운 호열자(虎熱列)

36) 「衛生學(續)」, 『만세보』, 1907년 3월 2일.

전염병(傳染病)과 같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컸다. 이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하며 라도 할
 , 할
 , 를 히 할
 , 치 할
 , 에 할
 , 에 할
 , 이어든 하며 히 이라도 ○ 할
 , 은 으로서 하여 가 케 할
 , 의 라도 에게 할
 , 의 이라도 치 할 37)

이에 의하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시지 말고 끓는 물에 식기를 세척할 것, 신선한 음식이라도 익혀 먹을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말 것 등 생활수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할 경우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과 전염병을 앓고 이 친인척이라도 위문을 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방 방안을 알려 주고 있다.³⁸⁾ 이외에도 『만세보』는 「위생법」이라는 글을 통해 구강(口腔),

37) 「衛生學(續)」, 『만세보』, 1907년 3월 24일.

38) 1899년 9월 내부에서 ‘호열자예방규칙’을 반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에서 호열자(괴질) 예방 규칙을 반포하였기로 좌에 기재하노라.

제1조 호열자 앓는 사람의 집에 예방법을 시행 하되 앓는 사람의 집을 정하여 병 보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치 말고 앓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소독 하여 병 보기 어렵거든 피병원과 적당한 집에 옮겨 치료 함을 받고 그 집은 항상 쓸며 공기를 유통하게 함이 좋고 앓는 자의 대소변 그릇은 뚜껑을 하여 덮으며 새지 않게 하고 마땅한 석회유과 또 생석회와 만일 석탄산수를 넣어 토사한 물건을 받은 후에 다시 소독 하는 약을 볼 것이니 그 토사 하는 물건을 받거든 곧 없이 하며 앓는 사람의 대변은 작더라도 요량 하여 석회유 십 분 일과 생석회 五十分 일을 부어 덮을 것이니 다시 보거든 번번이 소독약을 부며 앓는 사

음식물(飮食物), 음주(飮酒) 등과 건강법 및 공기와 가옥 등에 대해서도 위생의 일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⁹⁾

람의 쓰는 의복과 금침과 앞에 놓는 물건과 음식 그릇과 병 보는 사람들의 의복 등물과 앓는 자의 토사한 물건에 전염 할 의심이 있는 물건은 모두 묶어 그릇에 넣고 소독법을 행하며 앓는 사람의 몸과 토사한 물건에 모기와 파리를 모이지 못 하게 하고 병보는 사람은 자기 의복을 토사한 물건에 닿지 않게 하고 만일 손으로 그 물건에 대었거든 곧 석탄산수와 승홍수에 손을 씻고 다시 맑은 물에 씻으며 앓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다른 사람은 먹지 않고 병 앓는 자와 같이 있는 자는 물을 끓여 쓰며/제2조 호열자 난 때에는 병가 근방에 각 집에서 공동 하여 예방법을 각 집에 일러 주며 앓는 사람의 집을 능치 말며 병가에 우물을 다른 집에서 쓰지 말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끌어 쓰며 퇴와 찌기를 쓸어버려 병가에서 흘러 나리는 물이 넘치는 것을 막으며 음식은 끌어 쓰며 병이 나거든 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고/제3조 토사 한 물건에 소독약을 부며/제4조 호열자가 만연함을 막는 경우에는 한 집이 사이였던 한 집을 막고 한 집 아니라도 기동을 구별할만한 경우에는 막고 병독이 퍼질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웃 집이라도 막으며 막은 구역을 밝게 보이며 일용하는 물품은 운반하는 사람을 정하여 판비하며 면임 이임과 경찰관리가 그 구역안을 깨끗하게 하고 의사로 각 집을 순행하여 보며 예방을 일러 보이고 낮고 죽는 것과 피병원 막은 구역 안에 끓기를 5일을 지내되 새로 앓는 자가 없거든 막은 것을 풀며/제5조 집물 세간을 내 놓고 방안을 정이 쓸며 그 집물은 해 빛과 공기를 쏘이며 상 아래는 모래와 석회를 퍼며 의복과 직물에 더러운 것은 빨며/ 제6조 호열자 유행하는 염려가 있는 때는 중외 방곡에 예방법을 시행 하되 찌기를 쓸어 없애 흐르는 물을 깊이 치고 파상한 우물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고 길가와 같이 대소변 보는 데는 날마다 생석회와 석회유를 뿌리며 의사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의 부락을 순행하여 보며/제7조 호열자 유행하는 때에는 의사와 읍 촌 이원 吏員과 경찰 관리와 위생 관리 등으로 하여금 편의 예방 위원을 실시하여 예방 소독하는 일을 실시하여 예방 소독하는 일을 담임하게 하고/제8조 병자에게서 난 더러운 물건은 운반하는 사람을 정하여 한 곳을 정하고 운전하여 사르거나 묻으며/제9조 병들어 죽은 자의 시신은 땅 하나를 구획하여 잡되 장사하지 말고 다른 데 개장함을 허치 말며/제10조 병자의 쓰던 일용 집물과 집에 소독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 하였거든 받아쓰거나 매매하기를 허치 말며/제11조 호열자 유행하는 때는 우물과 수도와 뒷간과 개천을 쓸어 깨끗하게 하며/제12조 호열자 유행하는 지방에 혹 선척이 통래하거나 그 배를 검사하여 혹 앓는 자와 죽은 자에게는 이 규칙을 좃았으며/제13조 호열자가 성행 하는 때에는 지방관이 내부에 보하고 의사 위생 관리 경찰 관리 혹 부 군 사람과 아전 중에 마땅한 사람을 검역 위원으로 정하여 예방 소독하는 사무를 담임하게 하기를 청구하여 그 허가를 얻어 행하며/제14조 병이 있는 때에는 지방관이 극장 劇場과 채제 塞祭하는 인민의 모인 것을 검사하고 호열자 유행하는 기미가 있거든 지방관이 내부에 보고 유행하는 지방에 교통을 끊되 관리의 검찰 교통은 허할 일.”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의학이 수입되어 크게 확산되었지만 일반생활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서구문명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천도교의 경우 근대적 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천도교단에서는 『만세보』를 통해 근대위생에 대한 글을 학술적이기보다는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자 하였다.

IV. 천도교의 위생에 대한 종교적 인식과 심신수양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동학(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손병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중요함을 직접 목도하는 한편 경험하였다. 때문에 근대의 표준으로서 위생을 강조하였다. 일본에 머물면서 손병희는 국내의 교인들에게 위생과 관련하여 일종의 유시문을 반포하였다.

첫 번째 유시문은 1901년 11월에 반포한 「위생보호장」이다. 이 「위생보호장」은 위생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방금(方今) 세계(世界)는 위생(衛生)을 심요(甚要)”⁴⁰⁾하다고 하여, 위생은 시대적으로도 매우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정해진 천명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실상을 생겨져 나온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생겨져 나오는 음양의 이치 기운과 이를 통해 갖추어진 마음(心), 성품(性), 정기(精) 세 가지를 알아야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心)은 기야(氣也)요 성(性)은

39) 「衛生法」, 『만세보』, 1907년 6월 14일; 6월 15일; 6월 19일. 「위생법」은 연재물로 6월 14일의 글이 ‘續’이었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연재되었다.

40) 「위생보호장」, 1901년 11월.

질야(質也)요 정(精)은 뇌골폐부(腦骨肺腑) 개개절절(個個節節)을 응(應)하여 재(在)한 바”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음(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였다. 이처럼 마음을 중요시한 것은 종교적 심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위생과 건강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니, 사람이 마음을 잠시라도 정맥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라.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쓰고 행하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고 세 가지를 어그러지게 하지 말 것이며,

둘째는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기빠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지 말 것이라. 성내는 것이 과하면 정맥이 통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이 과하면 정맥이 화하지 못하고, 기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하면 산맥이 고르지 못하니, 반드시 큰 해가 있을 것이라 삼가라.

셋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니,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위에 넘게 되고 위에 넘게 되면 경락이 고르지 못하여 소화가 되지 못하는 고로 해가 많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먹는 물건의 종류가 많으나 그 가운데서 오곡은 순연한 정기로 이루어진 것이라. 가 되고 그밖에 다른 물건은 와 가 상반되나 고기 종류는 제일 가 많으며 술의 종류도 또한 가 많은 것이니, 조심해서 먹고 마셔야 할 것이니라.

넷째는 거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 비록 흙집이라 하더라도 안과 밖을 아침저녁으로 물 뿌리고 쓸고 거처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는 집 근처에 더러운 물건이나 물을 버리지 말라. 부패하여 냄새가 나면 가 되는 것이니 날마다 단속해서 닦고 물 뿌리며, 또한 몸에 땀이 흘렀고 먼지가 붙어 있으면 가 되는 것이니, 수시로 목욕하며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라.⁴¹⁾

이에 의하면, 위생 및 건강 보호는 ‘마음 지키는 것’, ‘기운을 바르게

41) 「위생보호장」.

하는 것, '음식을 조절하는 것', '거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利)보다 해(害)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생활화 하는 것은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는 중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생 보호하는 법'은 '민생 보호하는 법'과 '재산 보호하는 법'과 같이 '도(道)의 종지(宗旨)'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위생 보호하는 긴요한 방법을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손병희는 일본에 머물면서 『준비시대』⁴²⁾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준비시대』는 근대적 민주사회를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위생사무'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위생사무의 핵심은 질병은 불결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법을 강조하고 있다.⁴³⁾ 이외에도 전염병 예방법 실행, 우두법 시행, 가축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가축 전염병의 대명사가 된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대한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역시 불가불 엄격하게 예방해야 하는데, 가축 중 소 말과 닭 개 등이 걸린 병이 전염성과 관계되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를 따지지 말고 즉시 죽이고 깊이 매장하여 퍼뜨려지는 재난을 막아야 한다.⁴⁴⁾

가축에 대해서도 전염병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판단될 시에는 즉시 처분하여 매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생의 인식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

42) 『준비시대』에 대해서는 성주현, 『『北接大道主』의암 손병희의 근대국가정치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허수, 「손병희, 『준비시대』,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4을 참조할 것.

43) 손병희 저, 손운 역, 『준비시대』, 오늘코리아, 2015, 70~72쪽.

44) 앞의 책, 72쪽.

도하고 할 수 있다.

손병희는 1906년 2월 일본에서 귀국한 후 중앙총부를 설립하고 근대적 종교의 틀을 갖추었다. 이후 천도교인이 지켜야할 준칙 등을 ‘종령(宗令)’을 통해 반포하였는데, 역시 위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인들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위생의 신앙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교는 한울의 이치로 새 세상의 무한한 고초를 벗고 무궁한 복록을 누리는 큰 방편이라. 그런즉 복록을 누리기 하는 는 이 방편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먼저 한울의 감화를 받은 연후에야 무궁한 복록이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요. 또 크게 주의할 것이 있으니 육신의 질병은 매양 혈기 불순하므로 말미암아 생기고 혈기가 불순한 것은 마음기관이 불평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마음기관의 쇠패한 것을 완순케 하기는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의 성화를 받는데서 더 선량한 방법이 없는지라.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 교인의 생명 피는 성령 질병과 육신 질병을 낮고 또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방편으로 실행할 조건을 아울러 아래 기록하여 공포하니, 일호라도 심상히 알지 말고 극진히 시행하여 의외의 침해에 방지할 지어다. 성령 한울과 육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이여.⁴⁵⁾

즉 ‘무궁한 복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울의 감화를 받은 후에라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은 혈기가 불순하기 때문이고, 이는 마음기관이 불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의 성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울의 성화를 받을 수 있는 선량한 방편을 실행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선량한 방편으로 실행할 조건 즉 ‘실행 조례’는 다음과 같다.

. 주문과 청수를 지극히 염천념사하여 일본간이라도 한울과 신사의 간섭하시는 영험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45) 「종령 제오십사호」, 1910년 6월 23일.

- . 마음을 난동하여 천성에 감동력이 혼양치 않게 하며
- . 집안에 큰 소래와 분노한 빛을 내어도 그 화기를 감상치 말며
- . 조반 받고 할 때에 지성으로 생각하여 감화하는 기운이 일신에 화탕하거든 비로소 음식을 먹으며
- . 음식을 잘 간수하여 부정한 물건이 들지 않게 하며 어린 아이가 먹다가 남은 음식은 다시 먹지 말며
- . 생물이나 익지 않은 실과나 부정한 육종이나 상한 음식물을 부의 먹지 말며
- . 거처를 습하게 하니 말며
- . 집안을 세세로 소제하여 매우 정결하게 하며 물을 문 밖에 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며
- . 목욕을 자주하여 몸에 땀 냄새가 없게 하며
- . 집안과 뜰 위에 코나 침을 뱉지 말며
- . 이불을 자주 빨아내어 악취가 없게 하며
- . 어린 아이의 의복을 자주 빨아 입히며
- . 땀 젖은 의복을 시각이라도 두지 말고 곧 씻어서 악취가 있지 않게 함.⁴⁶⁾

‘실행 조례’는 모두 13개 조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도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과 청수를 지극히 하여 염천념사하여 한울과 스승의 간섭하는 것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생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며, 종교적 심신수양이 위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마음을 난동치 않게 할 것, 화를 다스릴 것, 음식에 대한 감사로서 또 다른 심신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심신수양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남은 음식 먹지 말 것, 익히지 않거나 상한 것을 먹지 말 것, 거처를 습하게 하지 말 것, 집안을 항상 깨끗이 할 것, 목욕을 자주 할 것, 코나 침을 뱉지 말 것, 이불과 아이들의 옷을 자주 세탁할 것, 땀에 젖은 옷은 바로 빨 것 등의 실천

46) 「중령 제오십사호」, 1910년 6월 23일.

적 위생 조례를 일호라도 빠지지 말고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이 위생 실행 조례 중에는 ‘가래나 침을 함부로 뱉지 말 것’은 이미 동학 시절부터 철저하게 실천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천도교의 근대위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근대전환기 동학 천도교의 근대적 위생인식과 이를 통한 실천적 사례, 그리고 심신수양과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천도교는 종교적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은 초기부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동학은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조선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교세를 확장해나갔다. 동학은 시천주의 만민평등사상, 후천개벽의 혁세사상, 그리고 척왜양의 보국안민사상을 제시하여 당시 일반 민중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와 같은 혁신적 사상을 기반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동학이 교세를 확장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위생의식’이었다. 조선후기 호열자라 불리는 콜레라를 비롯하여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동학은 ‘청결을 통한 위생’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사회에서는 전염병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지만, 동학교인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학을 하면 ‘전염병도 피해 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민중들이 동학에 귀의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교단은 사회변혁을 전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정신적 질병을 구제하는 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질병의 치료 즉 위생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를 계승한 해월 최시형은 위생을 보다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해월 최시형은

묵은 밥은 새 밥에 섞지 말 것, 묵은 음식은 끓여 먹을 것, 코나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 것, 대변을 본 뒤에는 땅에 묻을 것, 지저분한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 등 다섯 가지 위생규칙을 정하였다. 이는 당시 유행하였던 전염병 예방법이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동학은 괴질이라는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해월 최시형의 위생의식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는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통해 위생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보다 심화시켰다. 『만세보』를 통해 위생에 대한 인식을 계몽하였다. 「위생개론」을 비롯하여 「위생학」, 「위생법」을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재하였다. 손병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도교인에게 위생 실행 조례를 반포하였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학 천도교의 위생의 본질은 신체의 질병보다는 정신적 질병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수운 최제우에서 의암 손병희에 이르기까지 천도교의 핵심인 주문과 청수를 통해 심신수양을 강조하였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이 일상생활을 통한 위생을 토대로 정신적 수양으로 이어지는 인식이 동학 천도교의 위생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治道 論』

『제국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초등위생학교과서』

『준비시대』

『天道教會宗令存案』

『天道教經典』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천도교사편찬위원회 편, 『천도교백년약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81.

비숍 저,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릴리어스 호흔 언더우드 저, 김철 역,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이숲, 2008.

손병희 저, 손윤 역, 『준비시대』, 오늘코리아, 2015.

손동호, 「『만세보』를 통해 본 한말 위생담론 연구」,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443-472쪽.

신동원,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위생론-치병에서 위생으로」, 갑진개화운동 100주년 기념학술발표회, 2004, 55-73쪽.

성주현, 「『北接大道主』:의암 손병희의 근대국가정치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95-103쪽.

허수, 「손병희, 『준비시대』」,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4, 255-261쪽.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Hygiene in Donghak (Eastern Learning) and Cheondogyo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Sung, Joo-hyun*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perception of hygiene in Donghak (Eastern Learning) and Cheondogyo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of Korea. Westerners who first experienced Korean society after its opening in 1876 recognized it as one that was very far behind in terms of hygienic conditions. This perception was shared not only among the Westerners but also the Japanese immigrants to Joseon. After the port-opening of the nation, an enlightened figure who visited modern civilization such as Japan and the U.S. also felt that hygiene was a measure of a civilized country. Accordingly, he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while insisting on implementing the sanitary law. A new perception of hygiene has also come into being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Not only did Su-un Choe Je-u (서운 최제우), who founded Donghak, relieve mental illness, but also recognized the treatment of diseases, or hygiene, as important. Haewol Choe Si-hyeong (하얼 최시형), who succeeded this, focused on making hygiene more viable. In other words, Choe Si-hyeong set the five rules of hygiene: “Do not mix old rice with new rice; cook old food; don’t spit saliva or blow your nose anywhere; after emptying

* Institute for Korean Christian Culture, Soongsil University

the bowels, bury the feces under the ground; and don't throw away dirty water anywhere.” These were the popular ways of preventing contagious diseases at that time. By practicing this, Donghak was able to free itself from the epidemic of cholera, typhoid and other disease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Uiam Son Byong-hi (손병희), who inherited Haewol Choe Si-hyeong's hygiene rituals, deepened his awareness of modern hygiene through his exile in Japan. He enlightened his perception of hygiene through a Korean language newspaper 'Mansebo (만세보)' which dealt with such series of articles as "A General Introduction to Hygiene" and "Hygiene Law" as well as "Hygiology," thus making it easier for not only the believers of Cheondogyo but also the general public to get access to hygiene through enlightenment. In addition to this, Son Byong-hi also issued a sanitary practice ordinance to the believers of Cheondogyo and let them put it into practice.

But the essence of the hygiene of Donghak and Cheondogyo was to relieve mental illness rather than physical diseases. Therefore, from Choe Je-u to Son Byong-hi, the mind-body training based on incantations and hearings, as the core practice of Cheondogyo, was emphasized.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ption leading to mental training based on hygiene in the daily life is a recognition of hygiene in Donghak and Cheondogyo.

=Vk i adVe, 6a` YZS]† 5ZVā VaYka† 5ZaW<VŹg† 5ZaWE[ŹZkVā Y†
Ea` 4ka` YŹZ[† : kY[WW ? S` eW† 5Za^V†

7Ź? S[^ ZWŹ_ ^a2ZS` _S[Ź W
, S" # " & # ! , S" # " & S* ! , S" # " ' '*